

##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조병구 | KDI 연구위원 | cbkcho@kdi.re.kr

기성세대들은 남북통일이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이며 당위라고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믿어 왔다.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이나 막상 실현됐을 때의 실질적 유용성, 혹은 후유증 등에 대한 문제들은 그 이슈의 중요성이나 무거움에 비해 진지한 검토와 토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채 이어져 왔다. 독일이 통일 후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깨달았으나 막상 통일에 대한 준비는 충분치 못했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매년 늘어나 2009년 2,900명에 달했고, 그 누적 인원은 이제 거의 30,000명에 육박하고 있다.<sup>1)</sup> 북한이탈주민 숫자의 증가는 한편으로 통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들의 남한 사회에의 적응과 남한 사회의 북한이탈주민 포용이 모두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통일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sup>2)</sup>

북한 이탈의 동기도 처음에는 심각한 식량난을 피하여 국경을 넘은 생계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중상류층 인사들의 자녀 유학형 탈북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이 순조롭지 않다는 관찰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개인적 편차나 북한 사회에서의 위치, 학력, 직업 등에 따라 남한 사회 정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의 사람들이 잘하고 있고 누가 못하고 있는지, 차이는 얼마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나 정보는

1) 2016년 9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누적 29,830명에 이른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 2016).

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 현황은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 전과 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만, 매년 약 1,000명 정도는 꾸준히 남한에 입국해 왔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심층 연구는 꾸준히 증가해 온 추세이며, 사회적 관심도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2009년에는 2,914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1-12년 기간 동안에는 2,706명에서 1,502명으로 그 수가 약 45% 감소하였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 2016).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거의 유일한 결론이다.

사회 체제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그 성원들이 겪는 혼란과 갈등은 이미 독일의 사례에서도 많이 보고된 바 있고, 많은 체제이행국들에서도 그러한 충격과 혼란이 발견되고는 있으나,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같이 겪는 체제 변화와 소수의 이탈주민들이 꼭 짜여진 기성사회에서 겪는 좌절감과 소외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는 통합 이후에 예상되는 혼란과 갈등에 대비한다는 장기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당장 이것이 남한 사회 내 사회 분열과 갈등의 한 단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베이를 기획했다.<sup>3)</sup> 결과적으로 1,010명의 설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보고서 각 장의 기초데이터로 활용되었다.<sup>4)</sup>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설문 결과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에는 분명 여러 제약점이 존재한다. 가장 큰 제약은 표본집단의 편향성(sample bias)이며,<sup>5)</sup> 북한이탈주민이란 간접적인 방법만을 통해서 북한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북한의 제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접근 가능한 북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개요

	내 용
조사 대상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유효표본 수	1,010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3.0%p
조사 방법	집체 면접조사*, 일대일 면접조사** 병행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방법
조사 기간	2016년 6월 7일~7월 24일(약 7주간)

3) 이하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라고 한다.

4)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설문은 2016년 6~7월 기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실시 기관은 닐슨컴퍼니이다.

5)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오래 살았다고 응답한 지역은 함경북도(61.4%), 함경남도(10.2%), 양강도(16.4%) 순이었으며, 세 개 지역의 합계는 전체 탈북자의 88%를 차지했다.

본 연구에서는 서베이를 통해 재북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자본,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적응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극도의 강압적 독재 체제로 개인의 특징이 지워질 수 있는 북한의 사회구조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주입시키며, 이들 간에는 사회 관계망의 형성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이러한 사회 관계가 또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양태를 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치관 유형에 따라서는 남한 사회 적응도에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지, 남한 사회에의 적응은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유형별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적자본 관련 특성들은 남한 노동시장에의 편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